

습기·약취제거 장마철 필수가전 인기

살균 식기세척기·제습기능 세탁기 등 판매량 증가

심화영 기자 dorothy@dt.co.kr | 입력: 2009-07-05

장마철 실내 세균 번식률이 평소보다 높아지면서 알레르기나 세균, 약취 등으로부터 실내환경을 보호하는 가전제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3일 독일가전사 밀레코리아(대표 안규문)는 자사 식기세척기(모델명 1532SC)가 식기의 종류나 재질, 음식 찌꺼기의 성질에 따라 오토센서, 신속, 간편, 에너지절약, 강력, 섬세, 살균세척 등 최대 7가지로 세척프로그램을 세분화해 강한 세척력을 보여준다고 장마철에 유용한 살균가전이라고 소개했다. 이 제품에 탑재된 살균세척 프로그램은 일반 세척 프로그램과 달리 70도의 고온에서 식기를 세척해줘 젖병이나 어린이용수저, 도마 등에 탁월한 세척효과를 보여준다.

제습기와 제균기도 고온다습한 장마철을 겨냥한 제품으로 장마철 필수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LG전자(대표 남용)가 지난 5월 장마철을 대비해 출시한 가정용 2종과 대용량 2종의 제습기는 향균 탈취필터를 채용한 '공기 청정' 기능이 있어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 '신발 건조' 모드를 선택하면 탈 부착이 가능한 호스를 사용해 여름철 눅눅한 신발뿐 아니라 젖은 옷, 이불까지 간편하게 말릴 수 있다.

삼성전자(대표 이윤우)의 개인용 공기 제균기 '바이러스 닥터'는 플라즈마 방전으로 활성 수소와 산소 이온을 발생시켜 공기 속 바이러스와 세균, 곰팡이를 흡착해 무해한 상태로 중화시킨다.

위닉스(대표 윤희중)의 '반복 사용 제습제'는 습도가 높을 때 습기를 흡수하고 습도가 낮으면 다시 습기를 방출해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제품이다. 사용 후 햇볕에 자연건조하면 다시 사용이 가능한 실속상품이다. 롯데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롯데아이몰닷컴의 올 여름 게릴라성 호우에 대비한 '장마철 뽕뽕송 송 여름나기' 기획전에서 판매한다.

테크노마트 홍보팀 박상후 팀장은 "장마가 시작되면 각종 유해 물질과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한 디지털 제품의 판매량이 평소보다 확연히 증가한다"면서 "제습기나 건조기능 세탁기를 이용하면 눅눅한 실내를 쾌적하게 만들 수 있고 에어컨, 선풍기 등 여름 가전을 이용하는 것도 여름철 습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